

조경분야 전문공사업 업종 체계 개선 방안*

안명준

조경시공연구소 nTi(Landscaping)

I. 서론

정부는 전설분야 생산체계 개편을 주제로 건설업역 간 기존 체계를 변경하는 건설분야 생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29개 등으로 세분된 분야를 10개 내외로 통폐합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는 날로 높아져가는 조경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아 건설업 대공종화 정책에 대응하고, 적절한 조경분야 생산구조 개편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반 여건과 변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변화를 전제하고,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절한 조경분야의 생산체계와 생산구조 개편의 방안과 대응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업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II. 조경전문공사 업무 내용과 변화

1975년 건설업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공사업, 특수공사업, 단종공사업의 구분체계가 도입되었다. 이때 면허제도가 도입되었고, 앞서의 각 업역별로 3개, 5개, 18개의 업종이 형성되었다. 조경공사는 이때 특수공사업에 포함된다. 이후 1981년 건설업법 개정 시 일반공사업, 전문공사업으로 개편되면서 일반공사업은 원도급자, 전문공사업은 하도급자라는 형식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는 일반공사는 복합공사로, 전문공사는 단일공사나 부분공사로 보는 시각이 고착되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1996년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전기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이 포함되지는 못하였으나, 업종별 업무 내용과 공사 예시를 제시하며, 일반건설업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은 전문공사업이라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조경공사업도 종합분야의 조경공사업, 전문분야의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3개 체계를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는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등록기준 또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III. 조경공사 전문업종 체계의 검토

1. 조경공사 업무의 세부 내용

Table 1. 조경공사의 구분 및 특성(건설기준 참조 재정리)

구분	주요 업무 내용 및 특성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지형보전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깍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퇴메우기, 잔토처리의 토공사 중심의 업무.
	표토보존	
	지형변경	
식재 기반 조성 공사	일반식재기반	조경용 식물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육을 위한 기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함.
	인공지반식재기반	
	특수지반식재기반	
식재 공사	식재공통	수목의 식재유형·기능·재료 등과 이식 전 준비사항·뿌리돌림·굴취·운반·식재·유지관리 및 기타 이식에 따른 제반 사항을 포함함.
	일반식재기반 식재	
	인공식재기반 식재	
	수목이식	
조경 시설물 공사	잔디식재	조경시설물의 출입문 및 담장(장식벽 및 식생벽 포함), 앉음벽, 장식벽, 야외무대, 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경관구조물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업무.
	조경시설물공통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 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조경동선시설		
조경관리시설		
경관조명시설		
조경포장 공사	조경 급·배수 및 관수	보행자 및 자전거 등의 통행에 원활한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최근에는 바닥면 규모에 적절한 친환경성 기능이 요구되는 분야임.
	조경포장 공통	
	친환경흡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생태조경 공사	조경포장정계	조경의 대표적인 특성을 반영한 공사로서 생물 서식환경에 기반한 다양한 생태공간의 조성 과 연결, 복원, 창출 등의 제반 공사를 추진함. 생태환경의 조성과 복원, 지속적인 운영을 목표로 기반에서부터 서식 생물의 모니터링 까지 복합적인 공종으로 추진됨.
	생태복원공통	
	자연친화적 하천조경	
	자연친화형 빗물처리시설	
	생태못 및 인공습지조성	
	훼손지 생태복원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생태숲 조성	
생태통로 조성		
조경 유지관리 공사	임재녹화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의 업무.
	옥상녹화	
	폐도복원	
	환경친화적 단지조성	

*: 본 연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협회와의 지원으로 수행됨.

조경공사는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 복합공사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조경기준 및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표준시방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경공사의 세부 공종은 Table 1과 같이 다양한 분야와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조경공사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예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향후 조경공사의 업무 영역 제고의 기준이 된다.

2. 설문조사를 통한 개편의 방향 검토

또한 문헌 및 업계 동향과 동시에 관련 종사자의 의견 청취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조경 전문공사업의 변화 방향은 현업에 종사하는 관리자급 이상 업계 현황 이해도가 높은 관련자의 의견이 필수적이다. 이는 업계를 이해하고 정책 흐름을 파악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대면 전화통화를 통한 전문-종합 체계 개선 방안과 설문지를 통한 종합적 조경공사업 체계 개선 방안, 두 가지의 설문을 진행하였다.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였으며, 전화조사 44건 및 설문응답 78건이다.

대표적인 결과로는 1) 정부 대공중화 정책 이해가 56.4%로 대체로 알고는 있는 상황이었으나, 30.3%가 대공중화 목표(10% 내외) 지향이어서 업계 혼란과 피해가 가중될 것이란 의견이었다. 2) 업종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6.8%가 현재 국내 체계로 충분하다는 의견이었고, 다음으로 28.7%가 '종합-전문'의 위계를 없애고 목적물에 따른 실행 공종으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에 관하여서는 전화조사를 통한 심층인터뷰에서는 77.3%가 종합과 전문의 업종 통합에 대하여 반대이사를 표명하였다. 3)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50.5%가 현장에 적합한 설계안과 공사비 확보를 꼽았으며, 24.3%가 다음으로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를 지적하였다. 4) 조경분야의 향후 주력 업무로는 37.2%가 조경공간 유지관리를, 23.1%가 조경 식재시공을 중요하게 나타내 식재 중심의 개선책 마련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5) 향후 변화를 고려할 때 조경 전문공사의 체제는 신규 체계 모색(35.8%)과 현행 유지(32.1%)가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이런 결과는 전문공사명칭 변화에 대한 의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어떤 명칭이든 현행 2분야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의 명칭 변화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2분야 체계 52.0%, 3분야 체계 45.3%)

설문결과, 전부를 여기서 살피지는 못하였지만, 대체로 조경분야 전문공사업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거나, 향후 변화를 고려하여 유지관리업을 신설하는 3분야 체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무 범위는 식재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3. 소결: 전문공사업 조경분야 개선 방향

조경공사는 기본적으로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를 직접 다루는 분야로서 그 활동 범위와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조경공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새롭게 재규정하여 업역 개편의 기초로 삼아야 할 필요가 시급하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종의 미래 가능성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획일화된 통합이 아니라, 업무 내용의 분화 또는 개편 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목적하는 경쟁력 확보와 기술력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부수적으로 난립하는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조경분야의 경우, 전문공사로서의 특수성이 오히려 세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업계 관계자 또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조경공간을 통합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최적 체계의 모색

현행 조경 전문공사는 변화하는 조경업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타 공종의 부대공사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조경공간을 독립 대상으로 하는 조경공사의 위상 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법제의 보완과 그에 따른 건설업종의 변화가 모색될 필요가 시급하다. 따라서 현행 정책에서 보이는 전문공사업종의 단순 통합화는 조경의 특수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신규 조경공간뿐만 아니라, 기존 조경공간에 대한 품질관리, 성능관리가 시급해지는 시점에서 기존 신규 공사체계에 맞추어진 조경 전문공사업종의 체계를 강화되고 있는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조경유지관리업종을 추가 신설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과 생산성 증대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 통합에는 크게 반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적합한 체계로 반영할 필요가 시급하다.

참고문헌

1. 안명준(2020) 조경분야 생산구조 개편안 대응 방안 연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협회.
2. 한국건축시공학회(2019) 전문건설업종의 합리적인 분류체계 연구.
3. 이상석, 최기수(1997) 조경시설공사의 시공품질 분석을 통한 품질관리 항목의 중요도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5(3): 1-11.
4. 윤은주, 이은엽, 김미나, 오승봉, 이용주(2017) 기후변화 대응 식재환경 개선 기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5. 한국조경학회(2016) 신 조경시공학, 문운당.